

힘들고 재미없다면? 재미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런 사람이 있다.
길가다 만 원짜리 티셔츠를 사 입어도
명품이냐는 질문을 받게 되는 사람.
같은 말을 해도 무게감이 더해져
가슴 깊숙이 각인되는 사람.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당당함과 자신감에
저절로 품격이 만들어지는 사람.
한선화 지식정보센터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글 · 사진 _ 김 희 정 · 대외협력과 · khj@kisti.re.kr

멀찍이 바라보면서, 들려오는 얘기만 듣고도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

전문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실력자, 모범적이며 헌신적인 어머니, 언제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 줄 아는 강력한 친화력의 소유자, 만능 스포츠 우먼, 거기다 빼어난 외모와 글썽씨, 말썽씨까지.

그녀에 대한 평가는 무엇 하나 평범한 것이 없다. 그래서일까. 한선화 센터장에게 처음 던진 질문은 "센터장님도 기가 죽거나, 자격지심을 느낄 때가 있으세요?"였다.

"그럼요. 나도 사람인데."

그녀의 첫 마디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부러운 사람 많죠. 특히, 한 분야만 외골수로 파서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요. 우리 연구소가 인프라 구축기관이고, 제 일이 R&D자체라기 보다는 지식정보 구축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에 외골수가 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 덕분에 얻는 것도 많아요. 무엇보다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연구업적을 찾고 분석하고... 중요한 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사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 '여자' 라는 타이틀을 즐겨라

하지만 열정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일테면 '여성'이라는 한계 같은. 그녀는 언제나 과학기술인 한선화가 아니라, 여성과학기술인 한선화로 불린다. 그냥 학생이 아닌 여학생, 직원이 아닌 여직원으로 불릴 때의 묘한 차별감을 느낄 것도 같고, '여자는 이래서 안돼'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더 악착같이 실력에 승부를 걸었을 것도 같다. 부담과 불편이 따르는 '여자'라는 타이틀을 그녀는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

"글썽씨, 더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지만 차별을 받은 적은 없어요. 아니면 내가 둔해서 못 느끼는 건가? 어차피 같이 사우나에 못 갈 바에는 적당한 선에서 남성중심의 세상과 타협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오히려 여자라는 걸 즐기면 참 좋은데, 다들 그걸 잘 못해요.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여성과학기술인이라는 타이틀이 꽤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즐겨야 해요. 그럴 정도의 배포를 가지려면 자신의 일에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하구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스스로를 단단히 키운 다음에, 남녀차별은 그 다음에 논해도 늦지 않아요."

어쩌면... 말도 참 잘 한다. 거침없는 자신감과 탄탄한 논리 그리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강한 흡입력을 갖고 있는 말이다. 거기다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까지 제시한다. 말씨름에서만은 그 누구와 겨뤄도 질 것 같지 않다는 인상.

"하지만 여성인력 활용 부분은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여성인력 비율은 1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공계 졸업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40%가 넘으니까, 고급 여성인력 4분에 3은 집에서 놀고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국가적으로 보면 100이라는 베이스에서 고급두뇌 50을 선택하지 못하고, 겨우 70쯤에서 50을 골라야만 하는 상황인거죠. 더구나 R&D라는 건 한 분야를 미친 듯이 꼼꼼히 파야하는 거잖아요. 여성 특유의 집중력이 과학기술계 만큼 필요한 곳이 없을 텐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Focus in 이 사람



●● 조직엔 ‘엄마’가 필요하다



2005년 여름 금강에서 동향정보분석실원들과 함께

최근까지 그녀가 이끌었던 동향정보분석실은 KIST내에서도 가족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유난히 돋보이는 실이다. 리더십에도 여성 특유의 감성이 발휘되는 것일까?

“어떤 조직이든, 어디엔가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는 아이의 예쁜 점만 보이도록 타고난 숙명의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실원들 예쁜 점만 눈에 확 들어와요. 단점이야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대신 엄마가 사랑의 회초리를 들듯,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가끔은 ‘맘매’도 하죠.”

“또 위촉직원이든 팀장급이든 모든 실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똑같이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주입시킵니다. 위촉직원이라고 커피심부름 한 번, 화분에 물 한 번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도 맡은 직분의 전문간데, 그런 일로 시간을 허비하게 해선 안 되죠.”

●● 난 열정으로 산다



큰 딸 지선이

지금까지 한선화 센터장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세계 곳곳에서 생산되는 과학기술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정보이용자들의 성격에 맞게 분석 가공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작업들을 담당해왔다.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기술개발 주기는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어요. 고급 정보의 정확한 제공이야말로 바로 과학기술 발전의 최우선 과제죠. 그런데 그 첨단에 제가 선장인 ‘지식정보센터’라는 배가 서 있는 겁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녀를 보고 있자면 참 신기하다. 뭐든 다 멋지고 신이 난단다. 작고 가녀린 몸집 어디에 그 같은 열정이 숨어있는 것일까? ‘신명’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열기가 끊임없이 샘솟는 모양이다.

그녀의 열정은 곧바로 사업 성과로 이어진다. 직접 세계 곳곳을 뛰어다니며 정보 수집과 DB 구축을 이뤄내는가 하면 기발한 아이디어로 업무혁신을 이뤄내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인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이다.

“동향정보분석을 한다고 해서 꼭 정보수집인력을 많이 써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이디어죠. 코센 회원이 지난해로 3만 명을 넘었어요. 전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3만 명 한민족 과학자 회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가운데 축적되는 지식정보의 양은 실로 엄청 납니다. 수준도 아주 뛰어나구요. 동향정보분석실은 코센이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3만 명의 정보수집인력을 고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얻고 있는 셈이죠.”

업무에 관한 한 그 누구도 그녀에게 톨을 달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그 외의 것은 어떨까? 스포츠, 유희(?), 가족 등등 이것저것 질문을 던져보는데, 그때마다 그녀의 눈은 각기 다른 색깔의 열정으로 빛이 났다.

“운동 무지 좋아해요. 스케이트, 탁구, 수영. 그리고 등산도 좋아 하구요. 실원들하고도 가끔 운동 시험을 하는데, 서로의 몸을 부딪치며 운동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정이 더 들죠. 팀워크도 좋아지구요.”

“그럼 잘 놀죠. 스트레스 쌓이면 노래방 가서 고탐도 좀 지르고, 기다리던 영화 개봉하면 심야 표라도 꼭 구해서보고 그래요.”



전국 인라인마라톤대회에서 작은 딸 지영이와 함께

“가족이요? 남편한테는 음... 삼순이죠. 제가 잘 생긴 남자한테 좀 맹목적인 데가 있어요. 젊었을 땐 장 동건이었잖아. (웃음) 그리고 아이들은? 워낙에 엄마 노릇할 시간이 없어서 시간 생기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요. 어떨 땐 새벽까지.”

●● 재밌게 사는 것도 ‘트레이닝’

한선화 센터장의 이야기에 한참 빠져있다 문득 의문이 생겼다.

“그럼 언제 자요?”

“잘 만큼 자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려면...”

“힘? 들죠. 그런데 그게 다 재밌고 즐거운 걸 어떡해요.”

“어떻게 다 즐겨요?”

“아... 즐기는 거요? 그건 트레이닝을 해야 되요. 누구나 하기 싫고 지치는 일은 다 있죠. 그런데 그 일의 어디엔가는 틀림없이 재밌는 부분도 하나쯤 있게 마련이에요. 그걸 찾아 즐기는 거죠. 일 자체를 즐기든, 집중하는 순간을 즐기든, 일의 결과를 즐기든, 뭐든 다 즐겁기로 작정하고 트레이닝 하면 세상에 재미 없는 게 어딴어요.”

냉철하고 날카로운 눈매와, 통통 튀는 즐거운 표정이 공존하는 한선화 센터장. 그녀의 그 묘한 매력은 지침과 짜증까지도 재미로 만들어 버리는 타고난 열정 때문이 아닌가 싶다.

●● 미래의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다

끝으로 미래의 바람과 새해 소망을 들어봤다.

“내가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요. 저 사람을 통하면 안되는 게 없다,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다, 그런 말도 듣고 싶구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재미없을까요? 하긴 그 가운데서 또 재미를 찾도록 트레이닝 하면 되겠죠 뭐.”

“새해 소망이라... 애들이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 일은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애들 일은 내 맘대로 안되더라구요. 다른 엄마들처럼 뒷바라지를 못해 줘서 아이가 실력발휘를 잘 못하는 건 아닌가, 언제나 미안하고, 갈수록 애들 생각을 더 하게 되네요.”

그토록 당당하던 그녀의 눈빛이 아이들 얘기에 갑자기 은근해진다. 순간, 너무나 완벽한 모습 뒤로 슬그머니 숨어버릴 뻔했던 ‘인간미’가 폴짝 앞으로 튀어나와 버린다.

그게 그녀였다. 세상 둘도 없이 자신감 넘치는 여자, 그만큼 능력 있는 여자, 과로도 즐길 줄 아는 여자, 그리고 사랑 넘치는 엄마.

그 많은 것을 함께 가졌기에 KISTI에서 그녀의 역할은 더욱 클 것 같다. 냉철함과 어머니 같은 포근함을 동시에 지닌 채, KISTI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KISTI 조직의 아름다운 화합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그녀의 장밋빛 미래를 기대해 본다. 

Focus in 이 사람



한 선 화

1987 : 성균관대학교 정보공학 학사
 1989~1997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 석사 및 박사
 1997~2000 : 연구개발정보센터 선임연구원
 2001~2005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동향정보분석실장
 1998~현재 :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초빙강사
 2004~현재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부교수
 2006~현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장

** FOCUS IN 이 사람'에서는 한 번쯤 속내를 들여다보고 싶은 KISTI인을 추천받습니다. 집중 조명해 보고 싶은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나이·성별·직급 상관없습니다. (대외협력과 김희정)